

2010년 산업재해 현황은 어떠했을까

김성대 기자(gishu002@safety.or.kr)

〈표〉 산업재해 발생현황

구 분	2010년 9월말	전 년 동 기	증 감	
			증 감	증 감율
사업장 수(개소)	1,584,664	1,555,293	29,371	1.89
근로자수(명)	14,643,865	14,148,794	495,071	3.50
재해자수(명)	72,071	71,760	311	0.43
- 사고성 재해자수	66,302	65,526	776	1.18
- 업무상 질병자수	5,769	6,234	-465	-7.46
사망자수(명)	1,592	1,653	-61	-3.69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965	1,049	-84	-8.01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627	604	23	3.81
재해율(%)	0.49	0.51	-0.02	-3.92
사망만인율(‰)	1.09	1.17	-0.08	-6.84
-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	0.66	0.74	-0.08	-10.81
- 업무상질병 사망만인율	0.43	0.43	0.00	0.00

2010년 산업재해의 행방은?

올 상반기 갑작스런 산업재해 증가로 전국에 비상이 걸렸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얼마 전 발표된 9월말 산업재해 현황이 이런 비상 시국을 다소 진정시켰다. 하지만 재해율이 0.02%p가 감소했다는 데 대해서는 희망적이나 아직도 산업재해자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산업재해 줄이기 100일 작전이 단기적인 효과를 거두었을 뿐, 우리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산업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는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견을 달지 못하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9월말 기준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일단 재해율은 줄어 들었다.

전년동기보다 0.02%p가 감소한 0.49%를 보이며 희망을 논하는 이도 있지만 재해자 수는 311명이 증가한 72,071명으로 그리 희망적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풀리면서 공장 가동율이 증가하고 근로자가 많아져 재해율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재해율 감소폭은 미비하고,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으로 볼 때, 문제점을 확실히 되짚어보고 보다 획기적인 감소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번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조심스럽게 산

업재해예방 사업이 중대재해를 줄였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남은 3개월의 행보에 따라 울고 웃을 수 있어 그 어디에도 장담할 수 없다.

아직도 여전한 중소기업에서의 재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만 잡아도 선진국 대열에 바로 올라 갈 수 있다. 그러나 금년 9월말 기준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도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올 9월까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총 67,913명이다. 이는 전체 재해의 94%에 해당되는 수치다.

사망자는 다소 적은 83%를 차지한 1,322명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분포특성을 가지고 있다.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50인 미만의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현황은 더욱 처참하다. 전체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58.1%가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국고사업으로 산업재해예방 사업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가용 사업장에 비해 지원규모가 부족한 것이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재해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아직도 여전한 재래형 재해

9월말 사고성 재해 사망자수는 965명이다. 이중 전도, 협착, 추락, 충돌, 낙하비레 등의 재래형 재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61.97%이다. 재래형재해는 후진국형 재해로써 선진국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직 우리나라는 후진국형 재해인 재래형재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전도재해가 15,79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추락재해로 가장 많은 324명이 목숨을 잃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167명이나, 전년 대비 15.2%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도의 숨을 쉬게 한다. ☺

